

# 호남대 펜싱팀, 전국대회 여자사브르단체 금...은1·동1

최예니·최예니·정연수·임서진 조 1위 금메달 획득

남 서영인·허진범·박정호·유수근 조 3위...박정호 은메달

호남대학교 펜싱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호남대학교 펜싱팀은 전남 영광에서 열린 제52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여자사브르단체전 1위, 남자사브르단체전 3위, 남자사브르개인전 2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호남대 최예니·최예니·정연수·임서진 조는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해 8강전에서 호원

대를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준결승전에서 한국체대, 결승에서 동의대를 잇따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영인·허진범·박정호·유수근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단체전 8강전에서 경남대에 승리했지만 4강전에서 한국체대에 패하며 3위에 입상했다.

박정호는 개인전에 출전해 8강전에서 최선우(한국체대), 4강전에서 김병수(한국체대)를

연파하며 결승에 올랐지만 김재원(대전대)에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병진 호남대 펜싱 감독은 "펜싱 선수들이 두터워지는 상황에서 힘든 경기의 연속이었는 데 제자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남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대 펜싱부는 지난 2011년 창단했으며 국제대회에 활약한 최다희(리우올림픽), 권민아(국가대표 상비군), 정성현(국가대표 상비군), 박다은(청소년 국가대표), 양예술(국가대표), 김정미(국가대표) 등을 배출했다.

최이슬기자



## 전남 수영 꿈나무, 제18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서 우수성적 거뒀

영암초·장성사창초·여수한려초·나주라온초 등 활약...영암초 문강우, 문승유 2관왕 차지.



영암초 수영부 단체사진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제18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잇따른 남보를 전했다.

전남수영연맹(회장 황의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전남소속 수영 꿈나무들이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를 획득, 총 1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부와 유년부에서의 활약이 빛

났다.

먼저, 영암초가 총 금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영암초 문강우(6학년)는 남초부 배영50m, 100m에 출전해 31초 56, 1분08초0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초등부 배영 2관왕을 차지했고, 이어서 문승유(4학년)도 여자 유년부 평영50m, 100m에서 38초39, 1분25초96으로 금메달 두 개를 차지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또, 김수민(6학년)이 배영50m와 배영200m에서 33초45와 2분33초93의 기록으로 각각 동메달,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아람(6학년)은 자유형50m에서 28초92로 동메달, 김윤성(4학년)은 접영 50m, 100m에서 35초50과 1분17초80의 기록으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장성사창초에서도 박별(6학년)이 자유형 200m와 400m에 출전해 100m에서 2분16초10으로 동메달을, 400m에서 4분54초73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정근민(4학년)이 남자 유년부 자유형 100m에서 1분07초43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여수한려초 최하람(6학년)이 남초부 평영 50m와 100m에서 35초47로 동메달을, 1분17초07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나주라온초 이시후(4학년)도 남자유년부 평영 50m와 100m에서 40초29로 동메달, 1분 24초29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황의준 전남수영연맹 회장은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조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전남소속 꿈나무와 지도자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이 기세를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까지 이어가길 기원하고, 앞으로도 전남수영의 꿈나무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김아림·양희영, LPGA 세브론 챔피언십서 공동 4위

베트남계 미국인 부, 연장 끝 우승...시즌 첫 메이저대회 챔피언



김아림

김아림과 양희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에서 톱5에 올랐다.

김아림과 양희영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우드랜드의 더 클럽 칼턴우즈(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세브론 챔피언십(총상금 51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쳤다.

이로써 둘은 아야야 티피쿰(태국), 알바네 발렌수엘라(스위스), 알리엔 코퍼즈(미국)와 함께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공동 6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아림은 이날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어 이븐파 72타를 쳤다.

2020년 초청선수로 US 여자오픈 정상에 올

라 LPGA 투어 시드를 확보했던 김아림은 올 시즌 첫 메이저대회에서 오랜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공동 3위로 마지막 라운드에 오른 양희영은 버디 3개, 보기 4개로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2019년 혼다 타이랜드 이후 4년 만에 통산 5승에 도전했던 양희영은 톱5에 만족해야 했다. 양희영이 메이저대회에서 5위 안에 든 건 2017년 위민스 PGA 챔피언십 공동 4위 이후 6년 만이다.

대회 우승은 릴리아 부(미국)에게 돌아갔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앤젤 인(미국)과 동률을 이룬 뒤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을 확정했다.

공동 11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부는 이날 버디 5개, 보기 1개로 4언더파를 추가하며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베트남계 미국인인 부는 올해 2월 혼다 타이랜드에 이어 투어 통산 2승째를 올렸다.

우승 상금은 76만5000달러(약 10억1000만 원)다. 고진영은 이날 4타를 줄이며 공동 9위(7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감했다.



## 이강인, '인중 세리머니'에 "누나가 골 넣으라고 해서"

한국인 첫 스페인 라리가 멀티골...프로 첫 2골 폭발

한국인 최초로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멀티골을 터트린 '골든 보이' 이강인이 자신이 보여준 독특한 세리머니에 대해 누나를 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인은 24일(한국시간) 스페인 마요르카의 비시트 마요르카 에스타디에서 치러진 2022-2023시즌 라리가 30라운드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멀티골을 터트렸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헤타페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2018-2019시즌 발렌시아에서 프로로 데뷔한 이강인이 멀티골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국 선수가 라리가에서 한 경기 2골을 기록한 것도 이강인이 최초다.

멀티골을 폭발한 이강인은 라리가 선정 경기 공식 수훈 선수로도 뽑혔다.

이강인은 경기 후 구단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해 기쁘다"며 "시즌 초반에 설정한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고, 계속 노력해서 최대한 높은 순위에 들려고 할 것"이

라고 말했다.

마요르카는 승점 40(11승7무12패)를 쌓으며 라리 10위에 올라섰다. 지난 시즌 전체 승점 39점을 넘어섰다.

정규리그 8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강등권인 18위 발렌시아(승점 30)와는 승점 차를 10점으로 벌리며 잔류가 유력해졌다.

이강인은 "최대한 승점을 얻어서 가장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감하는 게 목표"라며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골을 추가한 이강인은 올 시즌 5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강인은 "숫자보다는 팀으로서 노력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 덕에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시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강인은 경기 종료 직전 약 60m 이상 질주해 헤타페를 터트린 뒤 인중을 오른손 검지로 문지르는 세리머니를 펼쳐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이강인은 "누나가 보라고 한 세리머니다. 항상 저한테 골을 넣으라고 한다"며 웃었다.

## "통일기원" 정남진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 성황...동호인 2000여 명 참가

김성 군수 "스포츠·관광 메카, 통일 시작의 땅 장흥 알려"



제17회 정남진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가 23일 장흥군 탐진강변에서 열렸다.

장흥군육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민 20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단축코스, 5km 건강코스까지 4개 그룹으로 나눠 치러졌다.

선수들은 오전 8시 20분 간단한 개회식을 갖고 스트레칭 체조 후 8시 50분부터 차례로 출발했다.

5km 건강코스 출발 전에는 지역 어린이들과 주요 참석 인사들이 통일기원 피켓을 손에 들고나와 평화의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이벤트

를 진행했다.

이날 풀코스 남자 1위는 김영집(무안/2시간 48분04초), 2위는 신현복(완도/2시간49분13초), 3위는 박정원(포항/2시간50분39초)씨가 차지했다.

풀코스 여자 1위는 김향미(광주/3시간12분 39초), 2위는 박진순(김해/3시간29분34초), 3위는 박은숙(광주/3시간32분02초)이 순위를 올렸다.

하프코스 남자 1위는 Kihugi Peter Mihango(케냐/1시간19분44초), 2위는 이인식(광주/1시간19분58초), 3위는 박종관(목포/1시간20분 25초), 여자 1위는 권순희(보성/1시간29분16

초), 2위는 조은숙(보성/1시간38분26초), 3위는 한향미(광주/1시간40분04초)가 차지했다.

장흥군은 대회 당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마라톤코스 구간에 모든 차량을 통제했다.

부산면을 지나 지천터널, 유치면에 이르는 구간에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돼 물과 이온음료 등을 공급했다.

구간마다 거리 응원단이 모습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안전한 대회 운영이 눈길을 끌었다.

행사현장에서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두부, 막걸리 등 푸짐한 향토음식을 제공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도 행사에 참석해 팬 사인회를 여는 등 전국 마라톤 동호인을 위한 축제의 장이 만들어졌다.

한편, 장흥군은 22일 '정남진에서 중강진까지' 통일기원 행사가 열려 마라톤 대회의 성공 개최와 평화통일의 염원을 모았다.

탐진강변에서 풍물놀이로 문을 연 행사는 정남진전망대로 자리를 옮겨 평화 비둘기 풍선 날리기, 박 터트리기 등 통일기원 행사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은 통일기원 퍼레이드에 나선 70여대의 오토바이 행렬이 참가자들의 눈길을 이목을 끌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대회는 장흥군이 통일 시작의 땅, 그리고 스포츠와 관광의 메카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참가자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